

---

# 고려시대 태조 追慕儀의 양상과 崇拜

---

한 정 수

(건국대학교 강사)

---

머리말

I. 왕실 혈통 신성화와 태조

II. 길례를 통한 태조 추모의

1. 원구의
2. 태묘의
3. 경령전
4. 태조 현릉

III. 신앙 종교를 통한 숭배

1. 연등회-봉은사
2. 팔관회-법왕사
3. 태조소상과 태조진전 사원
4. 태조무제일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11-413-G00018)”
- 투고일: 2012. 8. 21. ● 심사일: 2012. 8. 22. ● 게재확정일: 2012. 9. 3.

## 요약

이 연구는 고려시대 태조 숭배의 양상과 그 의미를 정리하여 고려시대 왕조운영의 특징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왕실 혈통 및 태조의 탄생에 대한 신성화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태조 사후 전개된 태조 추앙 및 숭배의 양상에 대해 국가적 제사 즉 길례적 제의(祭儀) 중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신앙 및 종교와 관련한 태조 숭배 내용 이해를 위해서 연등·팔관회, 태조소상 조성 및 진전사원 운영, 태조무제일 이해 등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태조 사후 지속적으로 추구된 태조 세계(世系), 탄생 등에 대한 신성화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고려세계」를 보면, 설화적 이야기를 통해 태조의 혈통을 신비화하고 있었다. 또 예언적인 풍수도참을 통해서는 태조를 삼한일통의 군주이자 용손(龍孫)의 뿌리로 상징화하였다. 나아가 성조화(聖祖化)를 통해 태조는 고려왕조의 상징으로 승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상을 가진 태조는 원구의, 태묘의, 경령전 및 성용전, 현릉 등 국가 제사를 통해 상제에 짝하는 배위이자 불천지주로서 자리매김되었다. 따라서 신성한 상징으로서 고려 국왕의 정기적 참알과 봉향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에서는 태조가 개최하기를 유연한 연등·팔관회를 가장 성대한 가례(嘉禮)로 행하였고, 태조를 상징하는 봉은사 진전 참알 및 봉향과 법왕사 행향 등을 친행하였다. 태조 추모와 숭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신앙화된 면이 나타난 것이다. 신성함의 상징인 태조소상과 진영이 조성되었고, 이를 중요 사찰에 봉안하기도 하였다. 태조가 행한 애민의 면은 기곡(祈穀)과 기양(祈禳)을 위한 기도의 승화 즉 태조무제일로 상징화되었다. 태조 숭배와 신앙이 만들어낸 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태조 혈통, 태조 탄생 등은 당대의 기록과 후대의 수식을 통해 신성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제사 및 신앙 종교 활동 속에서 주기적

으로 재생산되었다. 태조 숭배와 신앙으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고려는 용조이자 성조인 태조의 후손이라는 왕실 정체성과 통치의 당위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이는 연등·팔관회 등에서 보이듯 사회통합의 원리가 되었다 하겠다.

주제어 : 建國始祖, 神聖化, 聖祖化, 龍孫, 崇拜, 太祖塑像, 太祖眞殿,  
太祖信仰

## 머리말

왕조시대에 있어 건국시조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조상숭배의 형태는 다양했다. 대표적인 것이 신성한 탄생 과정을 뜻하는 시조신화이며, 사후 그를 추모하는 제사였다. 탄생 관련 신화는 왕실혈통의 신성화를 뜻하였고,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제사는 신성한 혈통의 계승과 정통성 확인 과정이었다. 결국 이들은 왕실의 정체성 확립과 신성한 권위를 뜻했다.<sup>1)</sup>

건국시조를 둘러싼 혈통 신성화 및 제사 등을 통한 추송의 형태는 고려시대에도 이어졌다. 태조의 탄생과 생애, 추모 및 숭배의 양상은 일반적인 면이 있지만 왕조 및 시대에 따라 독특한 면도 나타난다. 태조 왕건(王建)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상적 군주로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앙은 고려사회가 다양한 군주관과 사회운영원리 등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신의 도로서의 불교신앙, 치국의 도로서의 유교정치사상 등 유불병존(儒佛並存)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음양오행과 풍수도참·도교초제·천신·용신·산천신 등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서는 송·거란·여진·원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 천하의식을 가졌던 점도 있었다.<sup>2)</sup>

- 
- 1) 삼국시대의 경우 시조 제사시설로서 부여신(夫餘神)과 고등신(高登神)의 상, 시조묘(始祖廟)와 나을신궁(奈乙神宮), 백제 동명왕묘(東明王廟)와 구태묘(仇台廟) 등을 세워 시조추모를 행하였다. 또 왕실혈통 신성화와 관련해 고구려의 경우 특징적인 혈통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최근의 검토로 이승호, 2011,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天帝之子 관념 형성의 史的 배경, 『역사와 현실』81, 한국역사연구회 참조.
  - 2) 盧明鎬,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의 天下觀」, 『震檀學報』83;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 자위공동체, 삼국유민, 삼한일통, 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고려에서의 태조 이해는 팔관회 및 연등회, 군주관, 경령전, 길례 및 제사, 조상숭배, 토지제도 및 중농이념, 정치개혁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들 관련 연구는 개별적으로 전개되어 고려시대 전반에 끼친 태조의 정치적, 종교신앙적, 사상적 영향력을 종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려사회에서의 태조 인식 및 추모 양상과 숭배<sup>3)</sup>에 대한 종합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첫째 왕실 혈통의 정리 및 태조의 탄생 관련 신성화 노력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는 사후 원구 및 태묘, 그리고 현릉과 경령전 운영 등 길례적 제의(祭儀)를 통한 추모 양상, 세 번째로는 신앙 및 종교와 관련한 태조의 숭배 내용을 연등·팔관회 및 태조 숭배 관련 사찰, 태조무제일 등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이 연구는 앞으로 태조의 위상이 추모의 대상을 넘어 숭배와 신앙의 대상이 되어 고려사회 운영 원리의 하나가 되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본다.

---

3) 한편, 태조에 대한 추모와 숭배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왕실조상 숭배 형태로 폭넓게 이해한 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태조신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고려라는 국가공동체의 결속을 뒷받침해 줄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려 했다. 연등·팔관회 등을 연구하면서 제시된 것이긴 하지만 고려사회의 독특한 사회운영원리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안지원, 2005,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참조.

## I. 왕실 혈통 신성화와 태조

먼저 「고려세계」에 보이는 서술 내용은 고대의 건국 및 시조 설화, 기타 이야기 등을 종합하여 이를 고려 왕실 신성화를 위한 장치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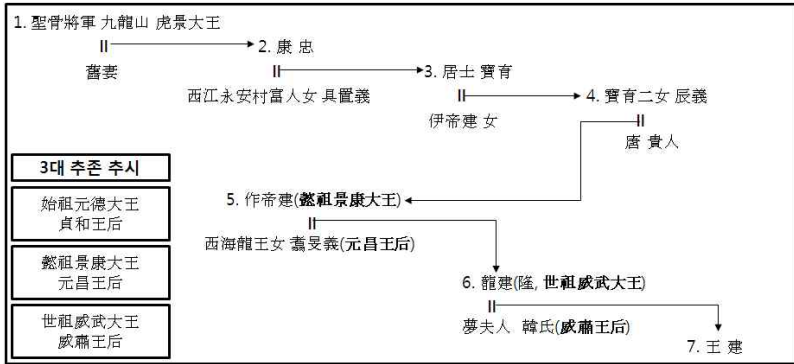
예컨대, 성골장군은 신라 성골의식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 호경이 죽은 자로서 옛 처와 결합한 내용은 진지왕과 도화녀 이야기 및 견훤 탄생 설화, 보육과 이제건의 딸 덕주와의 혼인은 신라 골품제 사회에서의 족내혼, 진의가 그 언니의 오줌꿈을 사고 당 귀인과 결합한 것은 김유신의 누이 문희와 보희의 선류매몽이야기, 신궁 작제건과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는 주몽과 유리의 이야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작제건을 선인(船人)이 바다에 내려놓자 활과 화살을 가진 그가 치성광여래로 화한 노호(老狐)를 물리치고 서해 용왕을 구하여 보답을 받은 것은 거타지(居陀知) 설화, 용왕의 선물인 돼지가 송악산 남쪽 기슭을 찾은 것은 고구려 유리왕 및 산상왕 대 희생용 돼지가 도읍지를 찾은 이야기 등에 해당하였다. 이외에도 용녀와 작제건의 결합 및 용녀로 화한 황룡의 우물을 통한 출몰은 백제 무왕의 탄생과정과 유사성이 있었다.<sup>4)</sup> 황룡과 우물은 신라에서의 황룡출몰과 황룡사, 또 알영정 및 나정 등의 신성한 우물과 연관

4) 『편년통록』의 이 같은 설화적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참조. 鄭仲煥, 1963, 先代世系說話에 대하여, 『東亞論叢』 1; 張德順, 1978, 「高麗國祖神話」,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李康沃, 1987, 「고려국조신화와 高麗世系에 대한 신고찰-神話素 구성과정에서의 변개 양상과 그 현실적 기능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48; 조현철, 2000, 「고려세계」의 신화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17, 한국고전문학회; 허인욱, 2003, 「「高麗世系」에 나타나는 新羅系 說話와 『編年通錄』의 編纂意圖」, 『史叢』 56, 歷史學研究會; 장영희, 2009, 「「高麗世系」, 『編年通錄』의 敘事性 研究」,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더구나 「고려세계」 곳곳에는 풍수도참과 관련하여 강충과 신라 감간(監干) 팔원(八元)과의 만남, 세조와 동리산조사(桐裏山祖師) 도선(道詵)과의 만남 등이 서술되면서 ‘統合三韓之主’의 탄생을 그리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태조의 혈통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세계(世系)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sup>5)</sup>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서 서술된 내용을 토대로 세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태조 선계 관련 세계도



이러한 내용을 태조 2년 3대를 추존 추시한 사항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태조는 즉위한 이듬해 태조 2년 3월, 3대에 대해 추시(追諡)하였다. 증조고를 시조원덕대왕(始祖元德大王), 증조비를 정화왕후(貞和王后), 조고와 그 비를 의조경강대왕(懿祖景康大王) 및 원창왕후(元昌

5) 고려왕실세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朴漢高, 1969, 「王建 및 그 先世의 姓·名·尊稱에 대하여」, 『史學研究』 21, 韓國史學會; 朴漢高, 1973, 「高麗太祖世系の 錯譜에 관하여-唐肅宗說을 중심으로-」, 『史叢』 17·18합; 河炫綱, 1988, 「『編年通錄』과 高麗王室世系の 性格」,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申滢植, 1990, 「統一新羅時代 高句麗遺民의 動向」, 『統一新羅史研究』, 三知院

王后), 고와 비를 세조위무대왕(世祖威武大王) 및 위숙왕후(威肅王后)라 했다.<sup>6)</sup> 증조까지 3대를 추존 추시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편년통록』을 기준으로 하면 왕건의 세계는 6~4대까지 분명해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왕건의 6대조 호경으로부터 시작되어 보육에 이르기까지 부계 혈통으로 이어지고 4대 진의로부터는 모계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려사』의 기록 속에서 주목할 부분은 증조인 시조원덕대왕과 조부인 의조경강대왕과 관련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호경과 관련해서는 구룡산에 국조성골장군사(國祖聖骨將軍祠)가 있다는 기록,<sup>7)</sup> 강충 및 보육과 관련해서는 임강현(臨江縣) 영통사(靈通寺)에 대한 설명에서 이곳이 아간(阿干) 강충(康忠)과 보육성인(寶育聖人)이 살던 마아갑(摩阿岬)의 땅이라 한 것이 유일하다.<sup>8)</sup> 의조경강대왕 및 원창왕후에 대한 기록도 찾아지지 않는다.

반면 세조와 위숙왕후에 대해서는 그 능호를 창릉(昌陵)이라 하면서 현종 18년에는 세조와 위숙왕후에게 ‘元烈’과 ‘惠思’를, 고종 40년에는 ‘敏惠’와 ‘仁平’을 추시한 바 있었다.<sup>9)</sup> 국난 때에는 태조의 재궁과 함께 세조의 재궁이 이안된 사실 등이 보이며,<sup>10)</sup> 국왕은 배알을 통해 추모하는 한편 세조진영을 영통사와 창릉 등에 봉안한 사실이 확인된다.<sup>11)</sup> 더구나

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2년 3월 신사

7) 『고려사』 권56, 지10 지리 왕경개성부 우봉군 구룡산

8) 『고려사』 권56, 지10 지리 왕경개성부 임강현 영통사

9) 『고려사』 고려세계. 이와 관련하여 세가에서는 현종 18년 4월 임오에 태묘를 배알하고 선왕 선후의 존호를 가상(加上)하였다 했으며,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18년 4월 임오) 고종 40년 6월 신해에도 선왕 선비의 존시를 가상한 바 있었다.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0년 6월 신해)

10) 고종 19년에 세조와 태조의 두 재궁을 신도인 강화로 이장했고,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9년 12월) 고종 30년 8월에도 강화 개골동(蓋骨洞)에 이장했으며, (같은 책, 고종 30년 8월 경오) 원종 11년에도 이판동(泥板洞)에 집을 지어 세조와 태조의 재궁(梓宮)을 봉안한 바 있었다.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11년 12월) 그리고 충렬왕 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세조의 재궁을 다시 창릉에 묻는 의례를 올렸다.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9월 갑진)

세조의 휘 ‘隆’은 송이나 금의 연호 사용 때 태조의 휘 ‘建’과 함께 피휘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sup>12)</sup>

결국 태조 윗대로 세조만이 유독 추앙되고 있다는 점은 3대 추존 혹은 5대(혹은 6대) 추모와 관련하여 의문을 보여준다. 드러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고려시대의 경우 세조-태조의 혈통만이 정통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sup>13)</sup> 그렇다고 해서 호경으로부터 작제건 즉 의조경강대왕 및 용녀 원창왕후까지를 모두 허구라 하기에 어렵다.

그 이유를 보자. 김관의는 의종 12년(1158) 무렵 여러 집안의 사측문서를 방집하여 『편년통록』을 편찬하였다. 동지추밀 병부상서 김영부(金永夫)가 이를 채택하여 의종에게 바쳤으므로 그 내용은 의종 자신이 대강의 이해를 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당시의 왕실 혈통 및 왕실·국가의례 정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편년통록』의 편찬 시점과 인종 23년(1145) 편찬된 『삼국사기』와는 그 시차가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의종 대의 경우 최윤의 등에 의해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가 편찬

- 
- 11) 영통사에 인종의 진영과 함께 세조와 태조의 성용이 있어 명종은 이를 배알한 바 있었다.(『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2년 3월 기사) 또한 공민왕 14년의 기록을 보면, 왜(倭)가 창릉(昌陵)에 들어와 세조진(世祖眞)을 취하여 돌아갔다고 하고 있다.(『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4년 3월 기사) 그리고 같은 달 을묘일에 다시 세조의 위판(位版)으로 대신해 봉안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같은 책, 동왕 14년 3월 을묘)
  - 12) 세조의 피휘와 관련해서는 이미 광종 대에 송 태조의 건륭(建隆) 연호에 대해 ‘준풍(峻豐)이라 한 점이나 “금(金)이 정원(貞元) 4년을 고쳐 정릉(正隆) 원년이라 하니 세조의 휘를 피하여 풍자(豐字)로써 용자(隆字)에 대신하여 행하였다.”라 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10년 윤10월 임인)
  - 13) 이와 관련하여 작제건 이전 세계가 불명하기 때문에 『편년통록』에서의 부녀 관계인 보육과 진의가 국조 원덕대왕 및 정화왕후 추존으로 설정되는 혼선이 생겼고, 3대 조고의 이름과 3대 조고비의 성씨도 명시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결국 세조로부터 고려사의 역사서술이 시작될 수 밖에 없었다는 연구시각이 있었다.(하현강, 1988, 『『편년통록』과 高麗王室世系の 性格』 『韓國中世史研究』, 일조각)

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역사문화사업 속에서 추진된 왕실 계보에 대한 정리와 혈통의 신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노력은 상당했다 판단된다.<sup>14)</sup>

결국 『편년통록』류의 이야기들은 고려 때까지 전해지는 전대(前代)의 신이한 설화적 이야기와 결연담(結緣談), 산신 및 불교설화 등에 기반하여 수식(修飾)한 것이었다.<sup>15)</sup> 그리고 내용 곳곳에는 풍수도참설과 불교설화, 용왕-용녀 설화 등이 연결되어 있어 삼한통합 군주 탄생을 얘기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풍수도참설과 용왕-용녀-용자로 이어지는 용손 설화는 고려에서 신성한 왕실 혈통과 왕업에 대한 이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태조와 관련한 특별한 혈통의식으로 용녀인 원창왕후와 관련한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원창왕후는 서해 용왕의 딸이자 황룡이었다. 네 아들 중 장남의 이름은 그 때문에 ‘龍建’이었다. 또 장화왕후 오씨의 꿈에 ‘浦龍, 來入腹中’하자 왕건을 만났고, 임신하여 혜종을 낳았다는 대목이 보인다. 또 혜종의 경우 ‘龍子’라 한 대목이 보인다.<sup>16)</sup> 문종의 손자인 광평공(廣平公) 왕원(王源)의 묘지명에서는 공의 세계가 용손에서 나왔다 하였다.<sup>17)</sup> 용과 관련한 이해가 보이는 것이다.

---

14) 이와 관련하여 왕실세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대 민지(閔漬) 및 권부(權溥)는 호경대왕(虎景大王)으로부터 원종(元宗)까지를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 7권과 세계도(世系圖)로 찬진하였고, 또한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국조원대대왕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본국편년강목(本國編年綱目)』 42권을 정리한 있다.(『고려사』 권107, 열전 20 제신 閔漬) 또 한편으로 이제현이 언급한 속에서 나오는 『왕대종족기(王代宗族記)』와 『성원록(聖源錄)』 등도 왕실 혈통의 신성화와 그 확인이라는 차원에서 정리된 왕실 선원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 『편년통록』의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사 정리로는 장영희, 2009, 앞의 논문 참조.

16)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 태조 장화왕후 오씨

17)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王源墓誌銘

이는 도참비기와 관련한 기록 속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고참(古讖)에 ‘용손(龍孫)이 12대(代)로서 다하고 다시 십팔자(十八子)가 있다. [有龍孫十二盡, 更有十八子之語]<sup>18)</sup>라는 기록이 나타난다. 원종 9년 장군 차송우(車松佑)는 김준(金俊)에게 “용손(龍孫)은 다만 금상(今上)만이 아니라 제왕(諸王)이 진실로 많으며 하물며 태조(太祖) 역시 장군(將軍)으로서 일을 일으켰으니 무슨 의심이 있겠는가?”<sup>19)</sup>라 하여 원종이 아닌 다른 태조 혈통을 세울 수 있음을 비친 바 있다. 이들 내용을 보면 고려 왕실 혈통에 대해 단지 국왕을 상징하는 용의 자손의 의미를 넘어 왕실 혈통을 ‘龍孫’으로 상징화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이른바 ‘용손의식’이라 할 혈통신성화가 이루어진 것이다.<sup>20)</sup>

다음으로 태조의 탄생과 그의 즉위 전 도참에 대한 서술을 보자.

태조 왕건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태조세가』에 보다 자세하다. 왕건은 당 건부(乾符) 4년 정유(877) 정월 14일인 병술에 송악 남쪽 저택에서 태어났다. 탄생 광경에 대해 신광(神光)과 자기(紫氣)가 방안을 비추고 뜰에 가득하여 하루 종일 휘도는 것이 마치 교룡(蛟龍)과 같은 형상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용안일각(龍顏日角)에 방이광상(方頤廣額)의 관상으로 기도가 웅장하고 깊으며 말소리는 우렁차 세상을 다스릴 도량이 있었다라 하였다.<sup>21)</sup> 탄생의 신이함과 기이한 제왕상 언급은 결국 태조가 신성한 존

18) 『고려사』 권128, 열전41 반역 이의민. 한편, 배중손 관련 열전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다. 즉, “용손(龍孫)이 12대에 끝나고 남쪽으로 향하여 제경(帝京)을 만든다.”는 참언이 있다는 것이다.(『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 배중손)

19) 『고려사』 권130, 열전 43 반역 김준. 이외에도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립(廢立)하려 할 때 사공(司空) 이응렬(李應烈)이 “용손(龍孫)이 한 분만 아니니 어찌 반드시 지금의 왕뿐이겠는가?”라 한 기록이 보인다.(『고려사』 권130, 열전 43 반역 임연)

20) 조선 태종 5년 10월 이궁(離宮)을 지은 데 대한 축하의 글 속에서 새로 도읍한 한양의 광경을 노래하며 권근은 ‘용손(龍孫)은 천명(天命)이 다하고, 선리(仙李)는 부창(敷暢)하여 영화하도다.’라 한 바 있다.(『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10월 임오(20)) 고려 왕실을 용손으로 상징화한 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재였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편 제왕이 될 징조로서 9층탑 꿈과 고경(古鏡)의 예언문자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태조는 즉위 10여 년 전인 30세 때 해중(海中) 9층 금탑에 오르는 꿈을 꾸었다. 9층 금탑은 황룡사 9층탑을 연상케 하며, 제왕 즉위와 통일의 위업 달성을 상징하는 면이 있었다.<sup>22)</sup> 또 태조가 궁예의 휘하에서 왕위에 오르기 직전인 918년 3월 당(唐) 상인 왕창근(王昌瑾)이 모두 147자가 쓰여진 고경을 기이하게 얻어 이를 궁예에게 바친 바 있었다. 여기에 실린 것은 시종 왕건의 등장과 삼한 일통의 위업을 달성할 것이라는 참언이었다.

이 같은 왕실세계와 탄생, 왕이 될 예언과 꿈, 고경의 도참 등은 실제 태조 당대의 것이라 보기 힘들다. 앞서 지적했듯이 선대 추존도 3대에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태조를 중심으로 한 고려 왕실의 혈통 신성화와 즉위 및 통치 합리화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화와 풍수, 도참, 꿈과 관상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은 특징적 면이라 여겨진다.

이상을 보면, 태조 세계와 탄생과 관련한 신성화 내용을 알 수 있다. 태조는 증조까지 3대를 추존함으로써 왕실의 정통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신화적 설화적 신이성을 담은 서사와 해당 요소들을 방집하면서 태조 세계를 신성화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왕실 혈통은 용손 의식으로 상징화되었다. 나아가 즉위 후 태조의 업적은 그러한 신성함 속에서 삼한통합 등 개국 군주의 위상을 뛰어넘어 성제대(聖帝帶)를 받을 수 있는<sup>23)</sup> 성조(聖祖)로 숭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 등

---

22) 이의민 열전을 보면, 그 아버지 이선(李善)의 꿈에 아들이 푸른 옷을 입고 황룡사 9층탑(黃龍寺九層塔)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귀하게 될 것이다.”라 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9층탑에 오른다는 인식이 귀상이자 제왕이 될 상이라는 이해와 통한다.(『고려사』 권128, 열전41 반역 이의민)

23)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0년 5월 계축

에서 성조이자 용조(龍祖)<sup>24</sup>)로 숭앙된 태조 신성성의 상징화가 길례 제사와 신앙·종교 등의 면에서 확립되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 II. 길례를 통한 태조 추모의

### 1. 원구의

고려의 원구의는 길례 대사로 분류되었다.<sup>25</sup>) 성종 2년 정월 신미일의 기록을 보자. 이날 성종은 고려왕조 최초로 원구에서 기곡(祈穀) 길례제사를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태조를 배위로 했다는 점이다.<sup>26</sup>) 이후 원구의에서는 맹춘 정월 상신 기곡과 맹하 우사 때 모두 호천상제-태조를 신위로 하고 있었다.

제사를 행하는 상일(常日)은 맹춘(孟春) 첫 신일[上辛]로 이때 풍년을 빌었다. 또 한편으로는 4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하여 우제[雩祀]를 지냈

24) 용조에 대한 표현은 고종 41년 12월 몽골군을 물리쳐 달라고 신묘(神廟)에서 산천신지(山川神祇)를 합사(合祀)하는 데서 나타난다. 즉, “본조는 옛날 삼한이 정립하여 영토를 다투고 백성들이 도탄에 있을 때 우리 용조가 천명에 응하여 일어났다.”라 하였다.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1년 12월 갑신)

25) 『고려사』 권50, 지13 예1 길례대사 원구.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李範稷, 1991, 「『高麗史』 禮志 五禮의 分析」,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 한정수, 2004, 「高麗時代 祈穀儀禮의 도입과 운영」, 『韓國思想과 文化』 26, 한국사상문화학회

26)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2년 정월 신미. 국가례를 체계화한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에서는 환구의의 신위에 대해 동지 및 정월 상신기곡(上辛祈穀)에는 호천상제-고조신효황제(高祖神堯皇帝)를, 맹하우사에는 호천상제-태종문무성황제(太宗文武聖皇帝)를 신위로 하고 있었다. 성종은 원구의를 행하면서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 이같이 고려에서는 정월 상신에 상제와 오방제, 그리고 태조에 대해 원구의례를 행하였고, 맹하에 우사(雩祀)를 행하였음이 보인다. 이외 5월에는 가뭄 등의 한재가 있을 때 도우(禱雨)가 행해졌다.<sup>27)</sup> 다만, 『대당개원례』 등에서 행한 동지환구의(冬至園丘儀)의 시행은 보이지 않는다.

제사에는 신을 위한 옥폐와 희생이 올려졌다. 원구의는 길례대사였기 때문에 옥폐(玉幣)와 생뢰(牲牢)가 준비되었다. 다만 옥폐의 경우 상제와 오제에게 올렸으나 배제에 대해서는 없었다. 생뢰는 배주에게도 바쳐졌다. 상제와 배주(配主)에게는 푸른 빛 송아지[蒼犢] 각 1두, 오방제에게는 각기의 방위색에 맞는 송아지[犢] 각 1두를 썼다. 섭사(攝事)로 행할 경우에는 상제와 배주에게 각각 양 1마리씩을 쓰고 오방제에게는 각각 돼지[豕] 1마리씩을 써 차별을 두었다.

축문의 실제 사례인 상제축(上帝祝)·오제통행축(五帝通行祝)·배제축(配帝祝)이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되어 있어 원구의 축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축문은 상신기곡원구제축에 해당한다. 상제축에서는 상제에게 의지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풍년의 혜택을 내려달라 하고 있고, 오제통행축에서는 팔정(八政) 중 식(食)과 오경(五經) 중 중대한 제(祭)를 고려하여 기도와 제수를 올리니 흠향하고 풍년의 은혜를 달라 하였다. 배제축의 내용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질(東秩)이 시절에 화협하고, 남교(南郊)에 일이 있어서입니다. 생각 건대 거룩하신 열조(烈祖)께서 일찍 터전을 잡으신 공이 가장 크고, 능히 저 천제(天帝)를 짝하셨으니 예(禮) 또한 고훈(古訓)에 마땅합니다. 왕립하여 흠향하시고 풍년의 상서를 도와주소서.”<sup>28)</sup>

27) 예컨대 예종 원년 7월 도우(禱雨)를 행할 때 예종은 회경전에서 3품관 이상을 거느리고 호천상제와 태조를 신위-배위로 하여 친사(親祀)한 바 있다.(『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원년 7월 기해)

28) 『동국이상국집』 권40, 釋道疏 祭祝 上辛祈穀園丘祭祝, “上帝祝 上天之載無聲 物

위 내용을 보면, 배위에 대해 배제(配帝)라 했음이 보인다. 천제(天帝)에 짝하는 존재인 배제-태조께서 후손을 위해 흠향하고 풍년의 상서를 도와 달라 한 것이다. 즉 태조의 신위가 기곡(祈穀)에 응할 수 있는 존재로 모셔지고 있는 셈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경우 하늘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sup>29)</sup> 신위와 배위도 마찬가지였다. 그 핵심적 내용은 제후국임을 자처한 조선이 천자의 예인 환구(圜丘)를 행하는 것은 참례(僭禮)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환구는 혁파되었으나 얼마 후 원단(圓壇)으로 복구되어 기곡(祈穀)과 기우(祈雨)를 행하는 대상이 되었다.<sup>30)</sup> 이후 원단 역시 사대 명분론에 따라 혁파되었으나 태종 14년 5월 남교가 아닌 동교 ‘우사단(雩祀壇)’을 세워 계승하려 했다.<sup>31)</sup> 이때의 신위는 상제나 오제, 배위-태조가 아니었다. 세종 대 들어와서는 다시 원단이라 하면서 원단기우는 지속되었으나 상신기곡 및 맹하우사의 상일(常日) 제향은 아니었다. 상신기곡의 형식을 갖춘 것은 세조 때였는데, 이때 환구제(圜丘祭)를 복설하면서 호천상제(昊天上帝)와 후토 황지기(后土皇地祇)를 신위로 하고 태조를 배위로 기곡제를 행한 것이다. 다만 날짜를 정월 15일로 조정하였는데, 세조 3년 정월 경진일 교사 때 친히 환구(圜丘)에 제사하면서 요예(療瘞)를 갖

---

資以遂 有國之本在食 人恃而生 方屆上春 用祈嘉穀 非帝之賜 斯民何資 五帝通行 祝 食先八政 將陳孔夙之祈 祭重五經 聊展可羞之信 享茲嘉靖 畀以豐登 配帝祝 東秩協時 南郊有事 思皇烈祖 功莫大於肇基 克配彼天 禮亦宜於古訓 宜臨侑坐 助介年祥”

29) 조선시대 제천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中村榮孝, 1970, 「朝鮮世祖의 圜丘壇祭祀について(上)」 『朝鮮學報』54 ; 金泰永, 1973, 「朝鮮初期 祀典의 成立에 대하여」 『歷史學報』58 ; 韓亨周, 1996, 「朝鮮 世祖代 祭天禮에 대한 연구 - 太·世宗代 제천례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震檀學報』81(2002, 『朝鮮初期 國家祭禮研究』, 일조각 재수록) ; 김문식, 2009, 「제천례」 『조선의 국가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30)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8월 무자(21)

31) 『태종실록』 권24, 태종 14년 5월 을유(13) 및 병술(14)

추어 황증조고(皇曾祖考) 태조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을 배향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sup>32)</sup> 그러나 이 환구 친제는 세조 10년을 끝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원구의와 그에 나타난 배제 태조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려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올릴 때 천명을 받은 국가시조인 태조를 상제의 배위로 둬으로써 천명을 받은 왕조의 명분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생리와 축문을 올려 풍년과 국태민안을 기도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원구의는 제천·사천의 예이지만 동시에 태조의 공덕이 상제에 짝하고 있음이 반영되었다. 결국 이는 후손이 올린 제향을 태조가 흠향하면서 후손을 위해 풍년 등 보살핌을 베풀어주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로서도 의미가 있었다.

## 2. 태묘의

한편 길례 대사로 변사(辨祀)된 사전(祀典) 중 하나로 태묘의가 있다. 태묘는 역대 제왕과 후비, 그리고 배향공신의 신위를 모시고 제향을 행하는 곳이다.<sup>33)</sup> 고려에서는 성종 7년 12월 처음으로 5묘 제도를 정하였고 8년 4월 태묘 비로소 태묘를 영건하기 시작해 11년 12월 완공하였다.<sup>34)</sup> 11년 12월 경신에 내린 교서에서는 소목 위치와 체험의례를 의논하여 정할 것을 명한 바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달 태묘에서 친히 협제를 올리기에 이르렀고,<sup>35)</sup> 이듬해 3월에는 소목의 위치와 관련해 혜종·정종·광

32)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정월 경진(15)

33) 태묘의와 태묘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李範稷,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 崔順權, 1998, 「高麗前期 五廟制의 運營」, 『歷史教育』 66 ; 金澈雄, 2005,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國史館論叢』 106, 國史編纂委員會

34)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7년, 8년 4월 을축, 11년 12월

중·경종을 일묘(一廟)로 정하였다.<sup>36)</sup>

태묘의 제향 상일은 한식과 납일이었고, 이외에는 춘하추동 4맹월 태일과 3년 1협(禘), 5년 1체(禘), 삭망천신(朔望薦新) 등이 행해졌다. 이외 국가 중대사 관련 기도급주고의(祈禱及奏告儀)가 마련되어 행해졌다. 특히 국왕 친제 때의 경우 옥책이나 죽책을 썼는데 태조실의 경우에만 옥책을 쓰고 나머지 8실에는 죽책을 써 달리했다.

태묘에서 가장 중요한 신위는 태조였다. 태조의 업적에 대한 사관의 평을 보면, ‘왕은 도량이 넓어 조정을 바로잡아 상벌을 밝히고 근검절약을 숭상하며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하고 유교를 존중하였다.’라 하고 있다. 그만큼 태조의 정치는 모범적인 것이었다. 혜종은 선왕에 대해 묘호를 ‘太祖’라 하고 능호는 ‘顯陵’, 시호는 ‘神聖’으로 정하였다.<sup>37)</sup>

이후 시호는 지속적으로 가상되었는데, ‘應運元明光烈大定睿德章孝威穆神聖大王’의 칭호는 이를 말해준다. 이외에도 인종 18년에 인용(仁勇), 고종 40년에 용열(勇烈)의 시호가 더해진 바 있었다. 태조의 공덕(功德)을 시호로 압축하여 그 위업을 기리는 가시(加諡)가 행해진 것인데, 건국의 위업을 달성한 군주에 대한 일견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 국왕의 태묘 친제 때 태조 등에 대한 존호 가상(加上)과 추상(追上)이 잇따랐다. 이 같은 가시와 가상존호 등은 태조의 위업에 대한 되새김과 추모의 의미를 상징화한 것이었고, 가시와 가상존호의 반복이 이루어지

35)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1년 12월

36)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3월 을미

37) 인종 16년 2월의 기사를 보면 주목할 내용이 보인다. 즉, “今後 凡上章 及公行案牘 毋得稱神聖帝王”할 것을 조서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고려사』 권16, 세가 16 인종 16년 2월 임오) 여기서 신성제왕은 인종 자신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태조의 시호를 이미 ‘神聖’이라 한 바 있기에 신성제왕은 태조를 뜻한 것으로 여겨지며, 공행 안독에 쓰였던 것을 고려하면 신성제왕 즉 태조와 관련한 문구가 정해져 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신성제왕 즉 태조에 대한 숭배가 문자로 상징화된 것을 읽을 수 있다.

면서 이는 태조 숭배의 양상을 띠었다.

태묘에서 태조의 신위는 불천지주(不遷之主)이다. 태조를 비롯한 역대 제왕의 위령(威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태묘는 신성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일제향일 외에도 국가 중대사에 대한 고유와 기복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위기 상황이 있을 경우 기우와 기양, 기청, 기설 등의 제향을 올렸다. 예컨대 기우와 관련한 것이긴 하나 정종(靖宗) 3년 5월의 기록을 보면 비오기를 비는 제장의 순서가 정해진 바 있었다. 즉, 북교(北郊)에서 악진(岳鎭)·해독(海瀆)과 모든 산천(山川)의 운우(雲雨)를 일으킬 만한 것에 빌고, 다음에는 종묘(宗廟)에 빌되 7일마다 한번씩 빌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악진·해독으로부터 처음과 같이 한다라 하였던 것이다.<sup>38)</sup> 북교에서부터 국가의 중심이자 도성의 중심인 신성한 종묘로 순차적으로 집중되면서 결국 종묘 기우가 최후 제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을 물리치기를 비는 기도를 올렸으며, 천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부를 묻 바 있었다. 국정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고유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왕릉수리에 앞서 그 사유를 아뢰었으며,<sup>39)</sup> 흉례와 관련하여 국홀 후 신주를 태묘에 무묘하는 ‘부태묘의(附太廟儀)’와 군례(軍禮)로서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가례(嘉禮)로서는 책왕태자의(冊王太子儀)·왕태자칭명입부의(王太子稱名立府儀)·왕태자가원복의(王太子加元服儀) 등 때 고유하였다.

그만큼 태조 등의 위령이 모셔진 태묘는 제사 공간으로서도, 보본추원(報本追遠) 및 기복(祈福)을 위한 곳으로서도 중요했다. 따라서 길례대

38)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3년 5월 신묘

39) 태묘 및 경령전에 함께 고유하고 있음이 보이는데, 간릉(簡陵)·헌릉(憲陵)·수릉(壽陵)·경릉(景陵)과 관련한 고유 축문에서 확인된다.(『동국이상국전집』 권 40, 釋道·疏·祭祝)

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모하고 국가 중대사와 관련한 기도 및 주고(奏告)를 행함으로써 태조는 고려 왕실과 왕조의 근본으로 지속적으로 재인식될 수 있었다.

### 3. 경령전

경령전은 태조의 진영을 중심으로 재위 중인 국왕의 사친(四親)을 봉안하여 배알하고 즉위를 알리며, 그 음덕을 비는 공간이었다.<sup>40)</sup> 궁궐 내에 마련된 원묘(原廟)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길례 대사로 편제될 정도로 왕실에서 중요시되었다. 『고려사』에서 경령전 관련 기사로는 덕종 즉위년 6월의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sup>41)</sup> 이때 경령전을 배알하고 즉위를 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령전의 설치 배경을 보자. 송에서는 대종상부 5년(1012) 송 태조 즉성조(聖祖)를 숭앙하기 위해 경령궁(景靈宮)을 세운 바 있다.<sup>42)</sup> 그리고 고려 현종은 이를 모델로 하면서도 태조-안종-현종 자신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종은

40) 경령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 조상숭배와 연관된 제례의 차원을 넘어 제장과 구조, 운영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허홍식, 1986, 「불교와 융합된 왕실의 조상숭배」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 한기문, 1998, 「王室願堂과 그 機能」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 한기문, 2008,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韓國史學報』 33, 고려사학회 ; 김철웅, 2009,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통권114,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동익, 2009,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 43, 역사교육학회 ; 김창현, 2011, 「고려 왕실의 상장제례와 태묘·경령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 홍영의, 2012,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1)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즉위년 6월 경자

42) 『宋史』 卷8, 本紀8 眞宗 大中祥符 5年 閏10月 戊寅 및 12月 戊辰, “(閏月)戊寅 建景靈宮太極觀於壽邱 …(중략)… (十二月)戊辰 作景靈宮”

부모를 위한 진전사원으로 대자은현화사(大慈恩玄化寺)를 창건하였다.<sup>43)</sup> 또 현종 12년에 이르러서는 경령전을 창건하여 태조와 안종의 진영을 모셨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경령전은 태묘와 함께 운영되면서, 재위 중인 왕은 태조와 자신의 사친을 중심으로 경령전 제향을 올렸다. 이 과정 속에서 경령전의 성격은 변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현종은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 경령전을 설치하였지만 점차 경령전은 불천주인 태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어갔던 것이다.<sup>44)</sup>

그렇기 때문에 덕종과 같이 즉위를 고하거나<sup>45)</sup> 국왕의 신어(神御)를 봉안하거나<sup>46)</sup>, 상복을 벗는 즉길(卽吉)을 고하거나<sup>47)</sup> 정조(正朝)·단오(端午)·추석(秋夕)·중구(重九) 등의 속절에 경령전 친전(親奠)이 이어졌다. 또한 경령전은 태묘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중대사에 대한 고유가 행해졌다. 그 유형을 보자.

먼저 문종 19년에는 왕자 왕후(王煦) 즉 대각국사의 출가를 고한 바

43)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9년 6월 무신

44) 윤소종이 경령전에 대해 “경령전은 태조황고(太祖皇考)의 별묘(別廟)”라 지적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고려사』 권120, 열전33 제신 윤소종) 경령전의 설치 배경과 시기 및 목적에 대해서는 김철웅, 2009, 위의 논문 참조.

45)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즉위년 6월 경자. 같은 예로는 예종 17년 4월 예종 홍서 뒤 인종이 같은 달 정유일에 경령전에 즉위를 고한 바 있다. 국홀에 따른 신왕의 즉위의례는 흥례에 해당하였다. 예컨대 심양왕 즉 충선왕이 충렬왕 홍서 후 경령전에 나아가 사위(嗣位)를 고한 것 등이 보인다.(『고려사』 권64, 지18 예 흥례 국홀) 국상을 마친 뒤 홍서한 국왕의 신주와 신어를 부제하는 의식도 부태묘의(耐太廟儀)에 준해 행해졌다.(『고려사』 권64, 지18 예 흥례 부태묘의)

46)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2년 8월 정축. 신어를 봉안하는 것은 대체로 재위 2년을 넘어서는 시점 즉 3년상을 치른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인종 2년 4월 임신에는 예종의 진영을 봉안한 바 있으며, 의종 2년 3월 갑자에는 인종의 신어를, 고종 2년 8월에는 강종의 신어를, 원종 2년 7월 신유삭에는 고종의 진영을, 충렬왕 2년 6월에는 원종의 진영을, 충선왕 2년 11월에는 충렬왕을, 충목왕 2년 4월에는 충혜왕을 봉안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에 대한 지적은 김인호, 2010, 『고려시대 국왕의 장례절차와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29, 한국중세사학회, 291~292쪽 참조.

47)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6년 정월 신축

있다.<sup>48)</sup> 다음으로는 문종 25년 2월에는 연등회 특설 후 경령전 배알이 행해졌으며,<sup>49)</sup> 군례와 관련한 것으로는 예종 3년 4월 여진정벌을 마치고 개선한 윤관(尹瓘)과 오연총(吳延寵)으로 하여금 복명(復命)하고 부월(鉞)을 도로 바치는 의식을 행하게 하였다.<sup>50)</sup> 가례와 관련해서는 의종 3년 5월 원자의 탄생을 경령전에 고하였으며,<sup>51)</sup> 국정에 대한 책기(責己)와 관련하여 명종 7년 7월에는 조위총(趙位寵)의 난 및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의 난 등과 관련해 명종 스스로 자신을 꾸짖는 책사(責詞)를 지어 경령전 태조신어(太祖神御)에 고한 바 있다.<sup>52)</sup> 빈례와 관련해서는 객사(客使) 전별연에 앞서 이를 경령전에 고유하기도 하였으며,<sup>53)</sup> 질역의 기운을 제거하기 위해 『반야경』을 외는 경행일(經行日)에 앞서 경령전에 이를 아뢰기도 하였다.<sup>54)</sup>

한편 고려는 황도(皇都)인 개경과 함께 서도(西都)인 서경을 운영하였다. 태조는 서경 등의 지역을 자주 순행하였고, 학교를 설치하는 등 서경 중시를 꾀하였다. 「훈요십조」에서는 서경에 대해 수덕(水德)이 순조롭고,

48)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9년 5월 계유

49)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25년 2월 무인

50)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 3년 4월 기축. 이같은 고유는 예종 4년 4월 무인에도 있었다. 즉 동계병마부원수(東界兵馬副元帥) 오연총(吳延寵)이 하직하자 예종이 경령전에서 부월을 몸소 내려준 것이다. 인종 14년 4월 경자일에도 서경만란을 평정한 김부식이 개선하자 이 사실을 경령전에 고하였다. 이 같은 출정과 개선 등과 관련해서 고려에서는 이를 군례로 정리하면서 경령전 고유를 예차에 넣어 정례화하였다. 건장출정의(遣將出征儀) 및 사환의(師還儀)가 여기에 해당하였다.

51) 『고려사』 권17, 세가17 의종 3년 5월 갑신. 이 같은 왕실의 경사에 해당하는 가례 때에 경령전에 고하는 의식이 정해져 있었다. 책왕비의(冊王妃儀)·원자탄생하의(元子誕生賀儀)·책왕태자의(冊王太子儀)·왕태자칭명입부의(王太子稱名立府儀)·왕태자가원복의(王太子加元服儀) 등이 그것이다.

52)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7년 7월 정미

53) 『동국이상국전집』 권40, 釋道·疏·祭祝 客使辭退宴景靈殿告事祝, “宴以示慈 將餞言歸之客 祭則致敬 先伸敢告之儀 卒事無虞 惟靈所相”

54) 『동국이상국전집』 권40, 釋道·疏·祭祝 經行日景靈殿告事祝, “俵彼闕庭 將授經以徇路 扣于仙寢 先寓信以陳籩 庶仗祖先之靈 永除疾疫之氣”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며 대업(大業)을 만대에 전할 땅이라 하면서 사중월(四仲月)에는 이에 행차하여 100일 이상을 머물러 안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훈에 따라 고려의 국왕들은 서경 순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태조행재소와 함께 태조진영을 모신 전각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목종 7년 11월에는 호경 즉 서경에 행차하여 재제(齋祭)를 올린 바 있는데,<sup>55)</sup> 그 장소와 대상은 태조 진영을 모신 사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개경의 경령전과 짝하는 곳으로서 주목되는 곳이라 하겠는데, 현종 9년 정월 서경에 사신을 보내 태조 초상을 다시 새롭게 바꿨다 하여 성용전(聖容殿)에서 태조를 제사하였다는 데서 그곳이 성용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56)</sup> 이곳 태조진전은 고려 국왕의 서경 행차 때 배알하는 곳이 되었으며,<sup>57)</sup> 이후 서경의 이궁인 장락궁 정전이라 할 장락전에서 백관의 조하를 받았다.<sup>58)</sup> 또한 여진정벌을 위한 군사출정 때 부월을 받는 의식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sup>59)</sup>

이상을 통해 본 바처럼 궁궐 내에 둔 경령전은 불천지주인 태조를 중심으로 사친(四親)을 모시는 원묘였다. 또 한편으로 서경에도 태조진전인 성용전을 두어 운영하는 한편 태조행재소를 보존하였다. 이처럼 경령전과 성용전 등은 신어 즉 성용(聖容)과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서 태조의 별

55) 『고려사』 권3, 세가3 목종 7년 11월 갑인

56)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9년 정월 을미. 서경의 태조진전인 성용전에 대한 연구로는 金澈雄, 2009, 「고려시대 서경의 聖容殿」 『文化史學』 31, 한국문화사학회 참조. 이에 따르면 성용전은 성종의 서경 순행 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태조진전, 태조원묘(太祖原廟), 감진전(感眞殿), 어용전(御容殿) 등으로도 불려졌고, 장락궁(長樂宮) 내에 있었을 것이라 보았다.

57)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 7년 8월 무오

58) 『고려사』 권12, 세가12 숙종 10년 8월 임오

59) 『동문선』 권44, 表箋, 伐女眞取其地築設城池實入丁戶訖獻功表, “臣謹言 聖上以東女眞背逆作亂 將欲問罪懲惡 以去年冬十一月二十四日 幸御西京 十二月初一日於祖眞殿前 親授臣鉄鉞 臣受命分兵四道而行 …(후략)…”

묘로 인식되어 태조를 축으로 한 조상 숭배의 중심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태조 현릉

태조는 5월 29일 흥서하였고, 혜종 즉위년 6월 26일에 장례를 치렀다.<sup>60)</sup> 능호는 현릉이라 하였으며, 여기에는 신혜왕후 유씨가 함께 부장되었다. 현릉 제향도 길례 대사의 하나로 편제되었고, 제향일은 배릉의 등에서 규정되지 않았으나 사맹월 길일 및 동지·납일, 삭망 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sup>61)</sup>

이같이 마련된 현릉은 태조의 성체(聖體)가 모셔진 곳으로 여겨졌고, 제관을 보내 시일에 맞춰 제향을 올렸다. 그러나 태조의 능이기 때문에 능 배알은 국왕에 의해 친히 행해지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현릉 친향, 배알은 후대 국왕들에게 정치적 권위를 부여했다. 『고려사』에서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사례를 보자. 정종(定宗) 원년 정월 기록을 보면, 현릉 배알을 위한 재계 때 어전 동산 소나무 사이에서 정종

60) 『고려사』 권2, 세기2 혜종 즉위년 6월 임신. 현릉에 대한 대대적 발굴이 1993년에 있었다. 이에 대한 보고서로는 김은택, 1996, 『고려태조 왕건』,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평양) ; 김인철, 2002, 『고려무덤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평양) 참조. 한편 현릉의 벽화고분에 대한 분석이 최근에 이루어진 바 있다.(지민경, 2011, 「10-14세기 동북아 벽화고분 예술의 전개와 고려 벽화고분의 의의」 『미술사연구』 25, 미술사연구회)

61) 삭망제와 관련해서는 후대의 기록이긴 하나 공민왕 20년 12월 경진 삭에 비로소 다시 현릉 삭망제를 행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고려사』 권61, 지15 에 길례 대사 제릉 공민왕). 한편 조선 세종 대에 정리된 것이긴 하나 『세종실록』 「오례의」에서는 건원릉(健元陵) 및 제릉(齊陵) 제향과 관련한 시일을 보면 삭망(朔望)과 정조(正朝)·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납일(臘日) 등이었다.

의 휘인 요를 부르면서 세민(細民)을 존휼(存恤)하는 것이 인군의 일임을 당부하는 일이 있었다.<sup>62)</sup> 이는 혜종의 지명으로 국왕에 오른 정종이 현릉 태조의 신위(神威)를 빌어 국왕 통치의 명분을 얻으려 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본다.

현종의 경우 안종(安宗)과 효숙왕후(孝肅王后) 황보씨(皇甫氏)의 아들로 태조와는 조손간이 된다. 안종이 태조와 신성왕태후(神成王太后) 김씨(金氏)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강조의 정변으로 우여곡절 끝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국난에 있어 즉위의 절대적 명분이 된 태조혈통을 지켜야 했다. 특히 태조 성체(聖體)가 안장된 현릉의 보호는 더욱 그러했다. 다음의 사례들을 보자.

현종 원년(1010) 11월 거란의 대대적 침입이 이루어졌고, 현종은 황급히 피난해야 했다. 그런데 이때 현종은 태조재궁(太祖梓宮)을 받들어 부아산(負兒山) 향림사(香林寺)에 이안했다. 이렇게 이안되었던 재궁은 현종 7년 정월에야 환장(還葬)되었다.<sup>63)</sup>

외적 침입으로 인한 봉천(奉遷)과 봉안, 그리고 복장의 사례는 국난 속에서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현종 7년 환장 기록 이후 현종 10년 11월 신사에도 태조재궁을 현릉에 복장(復葬)하였으며,<sup>64)</sup> 고종 4년 3월 병술에 단적(丹賊)의 침입이 있자 태조재궁을 봉은사로 봉천하였다.<sup>65)</sup> 고종 19년에는 몽골군의 침입으로 신도(新都)인 강도(江都)로의 천도가 행해지자 이해에 현릉을 세조의 창릉 재궁과 함께 이장하였다.<sup>66)</sup> 그리고 원종 11년 출륙환도가 이루어지자 개경 이판동(泥板洞)에 집을 지어 세조와 태조의 재궁 등을 임시로 봉안하였다.<sup>67)</sup> 그리고 다시 충렬왕 2년 9월 갑진에 이

62) 『고려사』 권2, 세가2 정종 원년 정월

63)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7년 정월 임신

64)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10년 11월 신사

65) 『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4년 3월 병술

66)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9년

르려 현릉에 복장하기에 이르렀다.<sup>68)</sup> 이외에 문종 13년 5월 현릉 묘실(廟室)에 도둑이 침입하자 능실시위대장군(陵室侍衛大將軍) 은정(殷貞) 등을 옥(獄)에 내려 죄를 준 바 있었다.<sup>69)</sup>

이처럼 외적 침입 때 태조재궁에 대한 왕실차원의 보호 노력은 절대적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용조이자 성조인 태조의 성체 보존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성한 태조의 혈손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제향을 올리는 것은 고려 국왕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졌고, 고려 국왕은 그를 통해 즉위 및 재위의 명분과 정통성을 확인했다 하겠다.

### Ⅲ. 신앙 종교를 통한 숭배

#### 1. 연등회-봉은사

태조 왕건은 훈요십조를 통해 국가대업이 제불(諸佛)이 호위하는 힘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하였다. 그리고 지극히 기원하는 바는 연등·팔관에 있다라 하면서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으로 추후 가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대회일에는 국기(國忌)가 없도록 할 것, 군신(君臣)이 함께 즐거워 하며 마땅히 이를 경건하게 행하도록 할 것을 남긴 바 있다. 연등회는 부처를 섬겨 공덕(功德)을 쌓으면서 군신이 하나되는 경건한 자리라는 인식이었다. 특히 훈요의 실천이 고려사에서 가장 큰 정치 명분이었던 만큼 후대 조정에서는 이를 따르고자 했다. 이처럼 연등회는 고려사회에서 연등

67)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11년

68)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2년 9월 갑진

69)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3년 5월 을미

공덕을 통해 공불(供佛)·사불(事佛)을 행하는 모임으로 받아들여졌다.

태조 대부터 목종 대까지 연등과 관련한 것은 훈요십조의 기록이 유일했다. 성종 대에 연등회 등이 정지 혹은 축소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성종 12년 전(前) 민관어사(民官御事) 이지백(李知白)이 “다시 선왕(先王)의 연등(燃燈)·팔관(八關)·선랑(仙郎) 등의 일을 행할 것”<sup>70)</sup>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선왕은 ‘성조(聖祖)’ 즉 태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등회는 현종 1년 윤2월 갑오 때 다시 열렸고, 정례화되는 것은 현종 2년 2월 보름 때부터였다.<sup>71)</sup> 연등회가 다시 열리기는 했지만 개경 도성 내외 어떤 사찰을 중심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신라 경문왕과 진성여왕 대의 기록을 볼 때 연등회와 연결되는 사찰은 최소 왕실과 연결되면서도 황룡사 같은 국가사찰일 가능성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사료가 정종 4년 2월의 기록이다. 이를 보면 이달 보름 연등으로 봉은사에 행차하여 태조 진영을 알현하였으며, 이후 연등 때 진전에 행향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하였다.<sup>72)</sup> 봉은사가 연등회와

70) 『고려사』 권94, 열전7 제신 서희. 이지백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성조(聖祖)가 창업하여 대통(大統)을 드리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선왕(先王)의 연등(燃燈)·팔관(八關)·선랑(仙郎) 등의 일을 행하고 타방(他方)의 이법(異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를 보전하고 태평을 이룩함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있다.

71)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1년 윤2월 갑오 및 현종 2년 2월 계미. 연등회 개설일자는 상원인 정월 보름에서 2월 보름으로 바뀌는 등 유동적이었다. 이에 대해 연등회가 불교 행사라는 전제 하에 2월 보름 석가 열반일, 요(遼)와 금(金)에서의 2월 8일 불탄일 행사 등이 적용된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농경관련 문화적 절기행사로서의 측면을 주목하면서 고려에 맞는 농경의례로서 2월 보름으로 옮긴 것이라는 설명이 있기도 하였다.(안지원, 2005,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56-64쪽) 다만 정월 보름의 상원연등회가 태조부터 목종까지 정월로 행해졌다면 중국의 상원연등회 수입과 함께 태조 탄일(정월 14일)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72)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4년 2월 계미. 연등의 경우 상원이나 2월 등으로 바뀌기도 하였으나 연등회 때에는 반드시라고 할만큼 봉은차 행차가 의식의 하나였다. 이는 결국 가례잡의(嘉禮雜儀) 상원연등회의(上元燃燈會儀) 봉은사 알조진의(謁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봉은사는 광종 2년(951) 도성 남쪽에 세워진 태조 원당이다. 창건 당시에는 대봉은사(大奉恩寺)라 하였다.<sup>73)</sup> 원당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확인키 어려운 면은 있으나 초기부터 태조 진영을 모셨을 가능성이 크다.<sup>74)</sup>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덕종 원년 6월 태조 휘신도량을 봉은사에서 배풍 바 있어 이때에는 봉안했을 여지가 있다.<sup>75)</sup>

이후 봉은사는 태조 진영을 모신 진전(眞殿)이 있는 태조 원당 사찰로 성역화되어 갔다. 봉은사에 국왕은 정기적으로 행차하였고, 태조진전을 찾았다. 덕종 원년 6월 이래 각 왕대별로 6월의 연중행사로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6월 삭일 봉은사 휘신도량, 그리고 경죄(輕罪)에 대한 방면 및 여수(慮囚), 궁궐에서의 국왕 보살계의 시행이었다. 이 세 가지 행사는 하나의 셋트처럼 이어지고 있어 태조에 대한 추모와 숭배 형태의 전형을 이룬 면이 있다. 태조의 원당이자 태조진전이 갖추진 국가사찰로서 봉은사에서는 국사 책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덕종 원년 8월 봉은사에 행차하여 법경(法鏡)으로 국사(國師)를 삼은 것이다.<sup>76)</sup>

---

祖眞儀)로 국가례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봉은사 알조진의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奥村周司, 2003, 『高麗における謁祖眞儀と王權の再生』 『早實研究紀要』 37, 東京

73)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2년

74) 태조진전에는 진영과 함께 태조소상(太祖塑像), 목주(木主) 등이 있었던 듯하다. 원종 11년 기록을 보면 이관동에 집을 지어 세조와 태조의 재궁 및 봉은사 태조소상과 9묘의 목주를 임시 봉안하였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11년 12월 정사) 충렬왕 16년 11월에도 태조소상을 강화로 봉천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 16년 11월 경술)

75)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원년 6월 신축

76)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원년 8월 무오. 이외에도 문종 원년 6월 을묘에는 왕사(王師) 결응(決凝)을, 문종 12년 5월 무자에는 해린(海麟)을, 예종 9년 3월 계사에는 담진(曇眞)을 국사(國師)로 삼은 바 있다. 광종 이후 국사의 책봉은 봉은사 태조영당, 왕사는 봉은사 및 내전에서 거행되었다 한다. 이에 대해서는 허홍식, 1993,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403쪽 참조.

태조의 신성함이 갖춰진 봉은사와 태조진전은 국가적 제향시설인 태묘나 경령전과 비슷하면서도 불교적 측면에서 다른 기능을 하였음이 보인다. 가령, 예종 4년 4월에는 미륵사와 함께 봉은사에서 국왕이 친히 제(齋)를 설하고 여진정벌전에서 승리하길 빌었으며,<sup>77)</sup> 천재(天災)가 있자 봉은사 효사관(孝思館)에 행차하여 태조의 진영(眞影)에 빌기도 하였다.<sup>78)</sup> 기도처로서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국가 중대사에 대한 점복을 행하는 성소(聖所)로서의 기능을 한 예도 볼 수 있다. 공민왕 6년 정월 봉은사(奉恩寺)에 행차하여 태조진전을 알현(謁見)하고 한양(漢陽) 천도(遷都)에 대해 점을 쳤던 것이다.<sup>79)</sup>

전란으로 현릉의 태조재궁을 봉천(奉遷)해야 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봉은사가 그 대상 장소가 되었다. 고종 4년 3월 장군(將軍) 기윤위(奇允偉)를 보내어 현릉(顯陵)에 나아가 태조재궁을 봉은사(奉恩寺)로 봉천(奉遷)하였다는 기사가 이를 말해준다.<sup>80)</sup> 또한 몽골과의 전쟁으로 강화 천도를 하였을 때에도 봉은사는 비록 모방한 것이지만 고참정(故叅政) 차척(車僮)의 집으로 봉은사를 삼고 민가를 철거시켜 연로(輦路)를 넓혔다 하고 있다.<sup>81)</sup> 강화천도 이후에도 봉은사는 태조를 모신 사찰이자 왕실과 국가를 위한 사찰로서의 중대성을 유지한 것이다. 공민왕은 즉위 직후인 원년 3월 봉은사에서 태조의 존호를 더하여 태조의 존엄함을 높인 바 있다.<sup>82)</sup>

이상에서 본 바처럼 봉은사는 태조 원당이자 진전 사찰로서 왕실과 국가를 위한 호국사찰로서의 기능을 가졌다. 여기에는 태조에 대한 추모와 숭배의 의미가 반영되었던 것이고, 이는 가례잡의 봉은사 조진전의로

77)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4년 4월 임진

78) 『고려사』 권38, 세가38 공민왕 3년 12월 무신

79)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6년 정월 임진. 이후 신우 4년 9월에도 천도에 대한 점복길흉을 행한 바 있다.

80) 『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4년 3월 병술

81)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21년 2월 계미

82) 『고려사』 권38, 세가38 공민왕 원년 3월 정사

설정될 정도가 되었다. 더더구나 국사 임명과 천도, 군국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가 중대사를 결정짓는 성소로서의 기능까지도 가졌던 것을 읽을 수 있다.<sup>83)</sup>

## 2. 팔관회-법왕사

팔관회는 매년 중동(仲冬) 개경의 궁궐과 맹동(孟冬) 때 서경에서 행한 대회(大會)로 국왕과 왕실, 국가를 위한 복을 빌기 위해 열렸다. 또 연등회와 함께 양회(兩會)로 꼽혔다. 연등회는 ‘事佛’ 팔관회는 ‘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 등을 행하는 ‘供佛樂神’의 행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태조는 이에 대해 군신(君臣)이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이므로 마땅히 경건하게 이를 행해야 한다고 유훈을 남겼다. 팔관회는 이후 가장 성대하게 열리면서 ‘만세에 전할 아름다운 모임[萬世通嘉之會]’라든가,<sup>84)</sup> ‘여민동락(與民同樂)하여 고루 만국(萬國)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신지(神祇)를 흠족케 하여 경사가 조야에 넘치는[與民同樂 均萬國之權心 喜洽神祇 慶騰朝野]’<sup>85)</sup> 가회(嘉會)로 일컬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팔관회를 축하하기 위해 신료들이 올리는 하표(賀表)에 잘 드러나고 있다. 선왕의 유훈[紹奉貽謀]을 이어 받들어 천축(天竺)의 도량[道場]을 장엄하게 배설하고 한대(漢代)의 포(醕)를 본받아 벌인 큰 잔치<sup>86)</sup>라 하였다. 태조의 유훈을 받들었다는 이해와 통한다. 김부식 역시

83) 충렬왕 때 친문과 점복, 역법 등에 능하였던 오윤부(伍允孚)는 항상 봉은사에서 고삭(告朔)하였는데, 이때 “태조시여 태조시여! 임금의 국사가 날로 그릇되나이다.[太祖太祖 君之國事 日非矣]”라 한 바 있다.(『고려사』 권122, 열전35 방기 오윤부) 봉은사 태조진전에서 행한 것으로 태조에 대한 추모가 신앙적 차원으로 승화된 면을 보여준다.

84) 『동문선』 권31, 表箋 賀八關表

85) 『동국이상국집』 후집 권13, 표2수 교방하팔관표

팔관회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이 대회의 개설이 태조의 뜻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태조신성대왕(太祖神聖大王)이 천명에 응하고 인심을 따라 삼한을 통일하여 천 년의 국조(國祚)를 열 때, 양화(陽和)와 고택(膏澤)을 흠족하게 하기 위해 팔관회를 준비하였고, 이에 잔치를 준비하여 신인(神人)을 기쁘게 하고자 연 것이라는 의미였다.<sup>87)</sup>

인종 대 활약한 곽동순(郭東瑄)은 하표에서 태조 창업 때 신숭겸 등 육공신을 운운하면서 삼한을 일가(一家)로 하였고, 천지가 아울러 내린 휴징에 보답하고자 군신(君臣)이 서로 기뻐하는 음악을 만들 때에, 용주(龍柱)에 영문(靈文)을 얻어 팔정(八正)을 열고 팔사(八邪)를 막았다 하였다.<sup>88)</sup>

이를 본다면 팔관회는 신라 및 태봉 때부터 이어져왔지만 태조에 의해 본격적으로 신명에 보답하는 차원 즉 악신(樂神)을 도모하고 군신(君臣)과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개설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매년 팔관회가 열릴 때마다 태조의 창업 과정과 그에 공헌한 공신에 대해 우인(偶人)을 만들어 이를 기림으로써 팔관회는 태조 창업을 숭양하고 군주와 왕조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최승로가 『시무28조』에서 갖가지 우인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더욱이 우인은 흥례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라 한 것이나,<sup>89)</sup> 예종 15년 10월 서경에서 행해진 팔관회에서 잡희에 태조 공신인 김락(金樂)과 신숭겸(申崇謙)의 우인이 있어 감동해 시가를 남겼다고 한 것,<sup>90)</sup> 곽동순이 하표에서 태조와

86) 『동문선』 권31, 表箋 賀八關表

87) 『동문선』 권31, 表箋 賀八關表, “...(중략)... 恭聞太祖神聖大王之將興也 風塵瀕洞 劔戟縱橫 應天順人 革三韓之積亂 勦業垂統 啓千載之永圖 以謂肅殺行而陽和來 雷霆作而膏澤洽 爰備燕樂 以休神人 煥示將來 傳爲故事...(후략)...”

88) 『동문선』 권31, 表箋 八關會仙郎賀表, “...(중략)... 故我太祖 奮義勇於水德之末 肇丕基於東明 之墟 得六功臣 邁蕭張韓之稱三傑 卜萬世業 合辰卞馬以爲一家 思以答天地並貺之休 於是作君臣相悅之樂 得靈文於龍柱 開八正而關八邪...(후략)...”

89) 『고려사』 권93, 열전6 제신 최승로

90)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5년 10월 신사

육공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 등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태조 추모와 숭배의 내용은 가례잡의(嘉禮雜儀) 중동팔관회의(仲冬八關會儀)에 반영되었다. 즉 난가출궁(鑾駕出宮)을 행하면서 의봉문루에 모셔진 태조 진영 앞에 나아가 술을 올리고 배례하고 있는 것이다 [詣祖眞酌獻]. 이는 서경에서의 팔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명종 20년 10월 갑신일의 기록을 보면, 이날 사신을 서경에 보내 예조묘(藝祖廟) 즉 태조묘에서 도제(都祭)를 올리도록 하였다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국왕들이 매년 연등과 팔관회 때 대신들을 보내 제사지내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sup>91)</sup> 이러한 내용은 결국 태조 숭배와 연결되는 면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팔관회와 관련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찰이 있다. 바로 법왕사이다. 법왕사는 태조 2년 3월 창건된 도성 내 10대 사찰의 하나였다.<sup>92)</sup> 법왕사는 경성 오부 가운데 북부에 속하였고, 법왕방(法王坊)이라는 방리명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sup>93)</sup> 또 『고려도경』에 따르면 궁궐의 동북쪽 춘궁(春宮)과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하였다.<sup>94)</sup>

특히 법왕사의 호칭은 법왕사에 모신 본존불의 위상을 반영하였다. 즉, 법신(法身)인 비로자나불이나 응신(應身)인 석가모니불이었다. 한편으로 법왕은 ‘불법의 왕’이자 ‘정법(正法)으로 통치하는 국왕’을 뜻하기도 하였다. 팔관회의 법왕사 행차에는 행향과 팔관설경문(八關說經文)<sup>95)</sup> 등이 올려졌다. 이 같은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고려에서는 법왕과 국왕을 동일시할 수 있었다. 이는 나아가 태조를 중심으로 한 왕즉불

91) 『고려사』 권63, 지17 예5 雜祀

9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2년 3월

93) 『고려사』 권56, 지10 지리 왕경개성부

94) 『고려도경』 권17, 祠宇 王城內外諸寺, “...(중략)... 王府之東北 與春宮 相距不遠 有二寺 一曰法王 次曰印經 …(후략)…”

95) 『동국이상국전집』 권39, 佛道疏 法王寺八關說經文

(王卽佛) 사상의 확대심화를 뜻하기도 하였다.<sup>96)</sup> 따라서 ‘법왕’이라는 명칭으로 본다면 이곳은 10대 사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시된 절로 신라 황룡사와 같은 왕실사찰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한 위상이 있었기에 강조에 의해 폐위되었던 목종은 다른 데도 아닌 법왕사에 거처했다.<sup>97)</sup>

특히 팔관회가 행해질 때 국왕의 법왕사 행차와 봉향은 공식 절차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행차가 기록상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성종 즉위년 11월이었다. 성종은 법왕사에 가 행향하고 돌아와 구정에서 군신(群臣) 조하를 받았던 것이다.<sup>98)</sup> 성종의 법왕사 행향 기록으로 본다면 이미 태조 대부터 팔관회 때 법왕사 행향 가능성은 매우 크다 여겨진다. 이후 정종 즉위년 11월 팔관회 때부터 다시 저녁 팔관소회에 법왕사 행차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sup>99)</sup>

한편 국왕의 법왕사 행차는 팔관회 때와 연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10월에 행한 백좌도량(百座道場) 때에도 이루어졌다.<sup>100)</sup> 이때는 3일간 도량이 설해지면서 내외로 하여금 3만명의 승려들에게 반승(飯僧)을 행하여 공덕을 쌓았다. 예종 4년 5월에는 여진(女眞)이 변경(邊境)에 입구(入寇)하자 법왕사에 친행하여 봉향하였음이 보인다.<sup>101)</sup>

---

96) 안지원, 앞의 책, 184쪽

97) 『고려사』 권3, 세가3 목종 12년 2월 기축

98)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즉위년 11월

99)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즉위년 11월 경자

100) 백좌도량은 주로 회경전이나 선정전, 신경전 등에서 행해졌다. 예컨대 예종 때에는 10월을 중심으로 회경전에서 주로 행해졌으며, 중외에서 3만명의 승려에 대한 반승이 행해졌다. 그런데 궁궐이 아닌 곳에서의 백좌도량이 행해진 곳으로는 법왕사가 유일하다. 인종 7년 9월 법왕사에서의 3일간의 백좌도량이 행해지면서 내외로 하여금 승려 3만명에 대한 반승이 이루어졌고, 인종 9년 10월 계유에도 이 같은 도량이 열린 바 있다.

101)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4년 5월 임자

### 3. 태조소상과 태조진전 사원

태조 생전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성스러운 장소에 이를 안치하고 의례를 갖춰 주기적으로 배알과 봉향을 행하는 것은 국왕이 태조의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고 권위를 계승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태조 생전의 모습은 사후 여러 가지 형태로 형상화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태조의 모습을 갖춘 그림이나 조각, 의친(衣襯)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태조의 진영은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모신 장소는 성소로 여겨졌다. 태조 진영이 봉안된 대표적 사원은 태조 원당인 봉은사였다.<sup>102)</sup> 연등회 및 6월 태조 기신 후 행향 때 반드시라 할만큼 봉은사 태조진전인 효사관에 행차하여 봉향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원종 11년에 이르러 출륙환도를 행하면서 개경 이판동에 집을 지어 세조와 태조의 재궁 및 봉은사 태조소상과 9묘 목주를 임시로 봉안하였는데,<sup>103)</sup> 이를 본다면 봉은사에 봉안된 태조 상징물은 최소한 소상이었다.<sup>104)</sup> 더구나 고려는 불교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소상 조성과 봉향에 대해 유교적 배격은 없었다.<sup>105)</sup> 이러한 태조소상 조성 시기는 광종대 대봉은사 창건 때 봉안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06)</sup>

고려에서는 이처럼 태조소상을 마련하고 연등회 및 6월 태조 기신 관

102) 국왕권의 회복과 알조진의(謁祖眞儀)의 관계에 대해서는 奥村周司, 2003, 「高麗における謁祖眞儀と王權の再生」 『早實研究紀要』 37, 東京 참조. 한편 봉은사 및 태조진전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한기문, 2008, 앞의 논문.

103)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 11년 12월

104) 충렬왕 16년 11월에도 태조소상을 강화로 만들어 옮긴 바 있다.(『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 16년 11월 경술)

105) 공자 즉 문선왕의 경우에도 소상을 만들어 숭문관에 모시고 있었다.(『고려사』 권62, 지16 예 길례중사 문선왕묘 공민왕 16년 7월 경자)

106) 盧明鎬, 2004, 「高麗太祖 王建 銅像의 流轉과 文化적 배경」 『韓國史論』 50, 서울대 國史學科 ; 한기문, 2008 앞의 논문 참조.

런 행함에 의례를 갖춰 봉향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모습은 부처의 자애로움과 통천관을 쓴 제왕의 상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부처 및 신인(神人)처럼 상징화된 형상을 통해 태조는 신성화되었고, 또 태조소상에 대해 국왕이 친향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성함을 잇는 존재로 국왕의 권위는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태조의 진영은 여러 사찰에 두어졌고 때로는 위급 때 이를 다른 사찰로 옮기는 등 왕실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였다.

먼저 주목되는 사찰이 개태사(開泰寺)이다. 개태사는 태조 19년 9월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제압한 후 같은 해 12월 연산(連山) 천호산 자락에 창건토록 한 절로,<sup>107)</sup> 태조 23년 12월 낙성되자 태조가 직접 낙성 화엄법회(落成華嚴法會) 소문(疏文)을 지은 인연이 있었다.<sup>108)</sup> 창건 당시 태조 진영이 모셔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공민왕 대의 기록을 본다면 태조 진영을 모신 영전(影殿)이 있었다. 공민왕 11년 8월에 개태사 태조영전에서 강화천도를 점치도록 한 것,<sup>109)</sup> 동왕 12년 정월에 개태사 태조 영전에 나아가 환도(還都)의 길흉을 점치도록 한 것,<sup>110)</sup> 공양왕 3년 5월 좌대언(左代言) 이침(李詹)을 보내 태조진전에서 제사하고 옷 1습(襲), 옥대(玉帶) 1요(腰)를 바치도록 한 것 등은 개태사 태조진전 시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태조 진영이 모셔진 또 다른 사원이 영통사(靈通寺)이다. 영통사는 오관산 자락에 있는 사찰로 태조 2년 창건토록 한 10대 사원의 하나였다. 특히 영통사가 있던 곳은 태조의 선계 아간(阿干) 강충(康忠)과 보육성인(寶育聖人)이 살던 마아갑(摩阿岬)의 땅으로 주목되었다.<sup>111)</sup> 영통사는 또

10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9년 12월

10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3년 12월

109)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1년 8월 경술

110)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정월 임인

111) 『고려사』 권56, 지10 지리 왕경개성부 임강현

한편으로 인종의 진전사원이 되었는데, 명종 2년 3월의 기록을 보면 이미 영통사에 세조와 태조의 진영도 갖추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12)</sup> 영통사지와 마야갑의 연결을 생각했을 때 세조와 태조의 진영은 이미 명종 대 훨씬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태조의 신어가 이안된 사찰로 문종 대에 창건된 대안사(大安寺)가 있다. 명종 10년 8월의 기록을 보면 태조와 정종(靖宗)의 신어를 옮겼다 하고 있다.<sup>113)</sup> 또 다른 사찰로는 죽주에 봉업사(奉業寺)가 있었다. 공민왕 12년 2월의 기록을 보면 죽주 봉업사 태조진영을 배알했다 하고 있다.<sup>114)</sup>

공민왕 및 우왕 대는 왜구의 침탈이 극심한 시기였다. 우왕 대의 기록을 보면 지방 사찰에 있던 태조진영을 이안하는 일이 잦았던 듯하다. 우왕 6년 7월의 기록에서 이를 알 수 있는데 왜구를 피하기 위해 가은현(加恩縣) 양산사(陽山寺)의 태조진영을 받들어 순흥(順興)에 옮겨 모셨다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sup>115)</sup>

#### 4. 태조무제일

태조는 5월 29일 병오에 홍서하였다. 재위 26년 나이 67세였다. 태조

112) 『고려사』 권19, 지19 명종 2년 3월 기사삭

113)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0년 8월 병신

114)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2월 병오. 고려 때 봉업사에 태조 진영을 봉안했다는 기록은 이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8, 경기 죽산현 고적 봉업사 조에 나오고 있다.

115) 『고려사』 권134, 열전47 신우 6년 7월 을미. 양산사는 문경현 회양산 자락에 있던 봉암사(鳳巖寺)의 다른 이름이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경상도 문경현 불우 봉암사) 이때 이안한 사찰은 용천사(龍泉寺)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풍기군 불우 용천사조를 보면 우왕 5년에 용천사로 옮겼다 하고 있다.

는 「훈요십조」에 보이듯이 애민의 마음이 깊었다. 이에 따라 ‘輕徭薄賦’와 ‘使民以時’·‘知稼穡之艱難’을 행하여 부국안민을 이룰 것과 ‘상벌을 바르게 하여 음양을 순조롭게 할 것[賞罰中則陰陽順矣]’ 등을 유훈으로 남긴 바 있다. 태조의 애민을 위한 이러한 의지는 그의 죽음 후 다른 차원으로 승화된 면이 있다.

농업을 산업기반으로 하고 있던 고려에서의 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이 한재(旱災)와 수재(水災)였다. 농업과 관련해 이들 재해가 일어날 경우 고려는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찍부터 이들 재해로부터 벗어나 풍년이 이루어지길 바랬다. 재해 극복 방안은 다양하게 행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국왕의 책기수성(責己修省), 기양(祈禳)을 위한 기도, 형정완화, 진휼, 월령준수 등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단계를 넘어 고려에서는 원구의로부터 태묘의, 경령전, 태조현릉, 연등회-봉은사, 팔관회-법왕사, 태조소상 및 태조진전사원 등을 통해 신성화된 존재인 태조를 주목했다. 즉, 태조의 신성한 힘이 후손과 백성을 위해 복을 내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우왕 3년에 있었던 재해와 이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 등은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해는 가뭄과 우박, 왜구의 침입이 잦고 심했다. 예컨대 이해 정월부터 왜구는 회원창(會原倉)을 도둑질하였고, 2월에는 신평현(新平縣)에 침입하였으며, 경양(慶陽) 및 평택현(平澤縣)에까지 들어왔다. 4월에는 울주(蔚州)와 계림(鷄林)에 침입하여 노략질하였고, 성변(星變)과 한건(旱乾)의 재이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으며, 폭우와 우박 등이 잇따랐다. 5월에는 왜구가 밀성(密城)에 침입하여 촌락을 노략질하고 보리[麥]를 취하여 배에 싣고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것과 같이하였다는 기록들이 보인다. 또한 가뭄으로 교·참(絞斬)의 죄수를 방면한 바 있었으나 또다시 우박이 크게 내렸다. 때문에 6월 들어 우왕은 이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면서 기우제와 함께 여러 사찰에 기도하여 이를

없애고자 했다. 그런데 당시 극심했던 가뭄에 대한 기우제를 올릴 때 우왕이 언급한 말이 주목된다.

“5월 29일은 태조의 기일(忌日)이다. 수재와 한재가 없도록 한 것이 성조(聖祖)의 소원이었으므로 이날 비오고 개이거나 하는 것이 그 기간을 잃지 아니하기를 400여 년인데 이제 이에 비가 오지 않으니 내가 어리고 덕이 없어 천심(天心)을 편하게 하지 못하여서인가, 또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러한가.”<sup>116)</sup>

5월 29일에 대해 태조 기일이라 하면서도 이날은 재해가 없는 날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즉 이 날을 태조무재일로 본 것이다. 이 같은 무재일이 400여 년간 지속되었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강조 차원은 아니었다 여겨진다. 그러면서 우왕은 자신의 대에 이르러 비가 오지 않고 있어 천심과 성조의 마음이 돌아서서 견책한 것이 아닌가 자책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우왕 3년에 처음으로 보이는 기록이긴 하나 400여 년 동안 ‘태조무재일(太祖無災日)’이 지켜지고 있었다 본 점이다.<sup>117)</sup> 그러한 무재일이 어그러짐에 대해 자신의 어리고 부덕함을 탓하

116)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3년 6월 경술

117) 이 같은 이해는 조선시대에도 나타난다. 태조우(太祖雨)와 태종우(太宗雨)가 이를 말해준다. 즉, 태종 기신인 5월 10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 5월 24일 내리는 비를 태조우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종은 “하늘을 오르내리시는 성조(聖祖)의 명령들께서 백성들의 일을 안타까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승에서 감응하는 것이다.”라 한 바 있다.(『승정원일기』 고종 10년 계유 5월 24일(신축)) 한편 태종우에 대한 인식은 일찍부터 형성된 듯한데 『연려실기술』 선조조고사본말에 보면, 『기재잡기』를 인용하여 “5월 10일에 내리는 비를 사람들이 태종우(太宗雨)라 하는데, 이백 년 동안에 금년에 처음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 식자들이 은근히 걱정하였다.”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燃藜室記述』 권15권, 선조조고사본말) 또한 19세기 인물인 이유원(李裕元)이 지은 『임하필기』에서는 ‘태종우’에 대해 태종이 가뭄을 근심하여 “날씨가 이와 같이 가무니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고 죄기(罪己)를 행함으로써 태조신성성의 회복을 바래고도 있다. 이를 통해 태조 재위 시기는 아니었겠지만 태조 사후 태조의 애민의 마음이 승화되어 하늘을 움직여 수재와 한재가 없는 무재일이 지속되었다는 이해가 고려인들에게 잠재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태조의 신성함과 신령함이 신앙의 형태를 띠면서 태조무재일로 상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이상을 통하여 고려시대 태조 혈통에 대한 이해와 탄생, 그리고 사후 태조 추모 및 숭배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조는 즉위 이후 증조고까지 3대를 추존하여 왕실 혈통의 정통성을 세운 바 있으나 실제 그 휘와 능호까지가 밝혀진 것은 세조 대에 불과했다. 또한 후대의 추존 및 기록, 숭배 양상을 보면, 태조 관련 왕실세계는 세조-태조로 이어지는 혈통만이 분명한 면을 띤 것이다. 다만 6대조인 호경으로부터 의조 경강대왕에 이르기까지의 경우는 설화적 내용의 수식(修飾)을 통해 신비화 신성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결국 태조 혈통의 신성화로 모아지는 것이었다. 하늘의 명을 받은 삼한통합 군주의 탄생 예언과 제왕으로의 등극, 삼한통합의 업적과 애민을 위한 덕정이 이어지면서

---

산단 말인가. 내가 마땅히 하늘에 올라가서 이를 고하여 즉시 단비를 내리게 하겠다.”라 하였고 승하한 이튿날 비가 왔다 소개하고 있다.(『林下筆記』 권16, 문헌지장편 태종우)

태조는 결국 혈통의 신성화 속에서 용손의식의 뿌리가 되었고, 태조는 고려왕조의 상징으로 승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사후 태조에 대한 고려왕조에서의 이해는 건국시조의 위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원구의를 통해서는 상제 및 오방제의 신위에 배워되었고, 태묘를 통해서는 불천지주로서 고려왕조를 지키는 수호신적 의미를 가졌다. 원묘라 할 경령전의 설치 속에서 태조의 진영은 신성한 상징이 되어 고려 국왕의 정기적 참알과 봉향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서경의 성용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현릉은 태조의 성체가 있는 성역이었다. 국왕의 참배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성체 즉 재궁을 보존하기 위해 고려는 국난 때 재궁의 이안과 봉안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를 상징하는 사불(事佛)·공불악신(供佛樂神)의 자리이자 군·신·민의 화합과 통합의 잔치였다. 이러한 연등·팔관회 때 태조를 상징하는 봉은사 진진 참알 및 봉향과 법왕사 행향 등이 있었다. 또한 태조의 건국과정 등이 우인을 통해 묘사되고 있었다. 고려에서 가장 성대한 행사에서 태조를 숭앙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신앙화된 면을 읽을 수 있다. 태조소상의 조성과 봉안은 그러한 내용이 압축된 것이었다. 또한 그러한 신성함과 신령을 갖는 태조 진영은 중요 사찰에 봉안되기도 하였다. 개태사, 영통사, 대안사, 봉업사, 양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태조의 애민은 기곡과 기양(祈禳)으로 이어졌는데, 태조 기일인 5월 29일을 태조무재일이라 인식한 것은 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태조 숭배와 신앙이 만들어낸 바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처럼 태조 혈통과 태조 탄생 신성화 등은 당대의 기록과 후대의 수식을 통해 갖춰졌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제사 및 신앙 종교 활동 속에서 주기적으로 재생산되었다. 결국 태조 추모를 넘어 숭배와 신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는 용조이자 성조인 태조의 후손이라는 왕실 정체성과 통치의 당위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이는 연등·팔관

사학연구 제107호(2012. 9)

회 등에서 보이듯 사회통합의 원리가 되기도 하였다. 즉, 태조 추모의와  
승배 양상은 태조신앙으로 승화되면서 고려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는 중  
요한 특징이 되었다 하겠다.

## 참고문헌

- 金澈雄, 2005,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國史館論叢』 106, 國史編纂委員會
- 김철웅, 2009,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통권114,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창현, 2011, 「고려 왕실의 상장제례와 태묘·경령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 자위공동체, 삼국유민, 삼한일통, 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朴漢高, 1973, 「高麗太祖世系の 錯譜에 관하여-唐肅宗說을 중심으로-」 『史叢』 17·18합
- 李康沃, 1987, 「고려국조신화와 高麗世系에 대한 신고찰-神話素 구성과정에서의 변개 양상과 그 현실적 기능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48
- 李範稷, 1991, 「『高麗史』 禮志 五禮의 分析」 『韓國中世禮思想研究』, 일조각
- 張德順, 1978, 「高麗國祖神話」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동익, 2009, 「고려시대의 景靈殿」 『歷史教育論集』 43, 역사교육학회
- 장영희, 2009, 「高麗世系」 『編年通錄』의 敘事性 研究 『한문학보』 21, 우리한문학회, 2009
- 鄭仲煥, 1963, 「先代世系說話에 대하여」 『東亞論叢』 1
- 조현설, 2000, 「고려세계」의 신화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17, 한국고전문학회
- 崔順權, 1998, 「高麗前期 五廟制의 運營」 『歷史教育』 66
- 河炫綱, 1988, 「『編年通錄』과 高麗王室世系の 性格」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 한기문, 1998, 「王室願堂과 그 機能」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사학연구 제107호(2012. 9)

- 한기문, 2008,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韓國史學報』 33, 고려사학회
- 한정수, 2004, 「高麗時代 祈穀儀禮의 도입과 운영」 『韓國思想과 文化』 26, 한국사상문화학회
- 허인욱, 2003, 「『高麗世系』에 나타나는 新羅系 說話와 『編年通錄』의 編纂意圖」, 『史叢』 56, 歷史學研究會
- 허홍식, 1986, 「불교와 융합된 왕실의 조상숭배」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 홍영의, 2012, 「고려 궁궐내 景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奥村周司, 2003, 「高麗における 謁祖眞儀と王權の再生」 『早實研究紀要』 37, 東京

## Abstract

# The Aspects of Commemorating Ceremonies for Taejo(Goryeo's first king) and the Cult in the Goryeo Period

Han, Jung-Soo

This paper attempts to arrange the aspects of commemorating ceremonies for Taejo(Goryeo's first king) in the Goryeo period and search for the features of the management of the Goryeo dynasty by arranging that these ceremonies were transcendentalize to be some kind of cults and beliefs. For this purpose, firstly I examine the consecration of the royal blood and the birth of Taejo. Secondly, I arrange how the commemoration for Taejo reflected in the ancestral rites of national level. Finally, I try to find the commemoration for Taejo relating the belief and religion.

By this process, I have come to some conclusion. The blood and birth of Taejo was consecrated by the records of that time and the emblazonment of late time. Taejo, who left Hunyo 10cho(10 injunctions for his successor to observe) and accomplished the unification of three Han, was reproduced periodically in the ancestral rites of national level and the activity for religion and belief as the divine progenitor. He was also the object of wish for national safety. From these phenomena, we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ult and religion for Taejo. Eventually Goryeo was able to establish the appropriateness of rule by the

establishment of royal identity and authority from the fact that Taejo was the divine progenitor relating the dragon. As we can see in Yeondeunghoe(Lotus lamp ceremony) and Palgwanhoe(Assembly of Eight Prohibitions), it became one of the principle for the integration of society.

Keywords : progenitor of country, consecration, commemorating ceremonies, blood relating the dragon, cult for ancestors, belief for Taejo(Goryeo's first king), Taejojinjeon(the building for the portraits of Taejo)